

第28次 東洋學者大會 參加報告

姜 周 鎮
(韓國圖書館協會 會長)

第28次 東洋學者大會는 1971年 1月 6日 부터 12日에 걸쳐 오스트랄리아의 서울「캔버라」에 있는 濠洲 국립대학교에서 열렸다. 이 東洋學者大會는 規定에 따라 每3年 마다 열리게 되어 있다. 따라서 67년에 美國의 「미쉬간」大學校에서 열렸기 때문에 70년에 열렸어야 할 것이었으나 1월달이 마침 濠洲大學의 여름방학이라서 규정된 해를 어겼지만 71년 1월에 열리게 된 것이므로 實은 70년도的大會가 아니라 71년도의 大會폭으로 열리게 된 것이다.

우리 韓國代表 一行은 합쳐서 11명으로서 1月 4日 午前 10時 KAL機편으로 김포공항을 출발하여 1月 5日 午後 1시경이나 되어 「캔버라」공항에 도착했다. 우리 一行은 다음과 같았다.

金斗憲(建國大學校 大學院長 東洋哲學)
李崇寧(서울大學校 東亞研究所長 言語學)
鄭在覺(高麗大學校 大學院長 東洋史)
崔虎鎮(延世大學校 教授 韓國經濟史)
趙璣澹(高麗大學校 教授 韓國經濟史)
李鳳順(梨花女子大學校 圖書館長 圖書館學)
金海宗(西江大學校 教授 東洋史)
孫寶基(延世大學校 博物館長 考古學)
高炳翊(서울大學校 文理大學長 東洋史)
咸秉春(延世大學校 教授 大統領特別補佐官 法律學)
姜周鎮(國會圖書館長 書誌學)

以上 11명은 臺北을 거쳐 香港에 내렸다. 香港에서 비행기 事情으로 豫定보다 1時間 늦게 밤 6時半頃에 「콘타스」機로 香港을 떠났다. 지체된 한시간동안 香港에 내려서 비행기는 「콘타스」 항공사에서 주선해 주었고 또 비용도 물어주어서 그 會社 지정호텔인 「미라마」호텔에서 休息할 수 있었고 저녁식사도 거기서 無料로 할 수 있었다. 비행기는 밤새도록 날아서 赤道를 넘는 까닭에 機內에서도 약간의 더위를 느꼈으며 새벽 4시경 濠洲 땅 北端部에 있는 「다윈」이란 中繼 비행장에 내렸다가 잠시 쉰 다음에 다시 「시드니」로 날았다. 「시드니」에 도착한 것이 午前 6時頃이었다. 「시드니」에서는 「시드니」沈 總領事이하 여러 분이 마중나와 주어서 여

러가지 편리를 들봐 주었으며 金斗憲 先生 등 일부 일행은 「시드니」總領事館을 들러 잠시 쉬었다가 오후 늦게 「캔버라」에 도착하였고 우리 일행 일부는 「시드니」에서 곧장 「캔버라」로 가는 국내비행장으로 가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캔버라」로 갔다. 「캔버라」에 도착한 것이 午後 1時頃이었다. 일부 일행이 「시드니」總領事館을 들리게 된 것은 沈 總領事가 바로 金斗憲 先生의 婿郎이어서 같이 들러서 쉬고 오게 된 것이리라. 「캔버라」비행장에는 濠洲大使館 직원과 濠洲 國立大學校 東洋學部 도서관에 근무하는 金夫人도 나와 맞아 주었으며 이분들의 案内로 손쉽게 우리들 宿所인 「겔란홀」에 도착하였다. 우리들 숙소는 大學生들의 寄宿舍로서 나와 孫寶基, 高炳翊 諸교수는 「겔란홀」에 투숙하였고 金斗憲, 李崇寧, 崔虎鎮, 趙璣澹, 鄭在覺 여러 교수는 「버튼홀」에, 그리고 李鳳順, 金海宗, 咸秉春 여러 교수는 「부르스홀」에 각각 투숙하였다. 「겔란홀」과 「버튼홀」은 붙어 있었고 「부르스홀」은 조금 떨어져 있었다.

짐을 풀고 목욕을 하고나니 5일은 그냥 지나갔고 6일은 등록을 마친후 開會式만 市立大講堂에서 성대히 거행되었을 뿐이었다. 開會式은 역시 前會長의 引繼演說이 있었고 新會長의 人事와 濠洲總督의 祝賀人事가 있던 뒤 간단히 끝났다. 총 1,200餘名의 東洋學에 관한 碩學들이 모이고 보니 自然 濠洲에 東洋學에 관한 새로운 붐을 일으키게 된 셈이 되었다. 本格的인 會議은 7日 午前 9時부터 各 分野別로 進行되었다. 韓國에서 간 11명中에는 研究發表者가 많지 않았다. 그것은 參席與否가 확정되지 못한 까닭으로 준비가 소홀했기 때문이었다. 金斗憲 先生이 「韓國의 家族制度」에 關해서, 李崇寧교수가 「韓國의 言語學研究의 現況」에 關해서, 金海宗 교수가 「韓中兩國의 王朝變革期의 比較研究」에 關해서, 孫寶基 교수가 「韓國의 考古學」에 關해서, 高炳翊교수가 「韓國과 儒敎思想」에 關해서, 그리고 咸秉春 교수가 韓國의 「法生活의 傳統과 現實」에 關해서 各各 研究論文을 發表하였고 李鳳順 교수가 「東洋學者들을 위한 도서관학 교육」에 관한 세미나에 討論者로 參加하였고 도서관 세미나의 企劃者의 한분이며

東洋學部교수인 王 교수의 호의로 豫定에 없었지만 韓國關係가 소홀히 되어 未安하다고 하여 특별히 本人에게 發表할 기회를 주었다. 그래서 地域別 토론시간이 되어 豫定에 없던 中國시간에 本人이 「韓國도서관의 歷史의 背景과 書誌事業의 現況」에 대하여 論文을 發表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이번에 研究發表및 세미나에 關한 地域別 및 專門部門을 들면 다음과 같다.

1. 西部아시아地域

- (1) 이집트를 中心으로 한 古代中東問題
- (2) 基督敎를 中心으로 한 中東問題
- (3) 아랍을 中心으로 한 中東問題
- (4) 수메리안과 아카디안을 中心으로 한 中東問題
- (5) 이란을 中心으로 한 中東問題
- (6) 포에니시안과 우가리틱의 古代中東問題
- (7) 헤브류우 中心의 中東問題
- (8) 이슬람과 中東問題
- (9) 現代中東問題
- (10) 現代 헤브류우中心問題
- (11) 세미틱 哲學問題

2. 南亞地域

- (1) 古代宗教問題
- (2) 古代言語問題
- (3) 古代哲學問題
- (4) 古代文學과 歷史問題
- (5) 古代歷史問題
- (6) 文化人類學과 社會學
- (7) 神秘성과 文學 및 文化
- (8) 南亞地帶의 政治 行政 및 歷史
- (9) 中世와 近代에 있어서의 歷史와 文化
- (10) 古代 및 中世의 藝術과 建築
- (11) 獨立以前の 政治
- (12) 「모스렘」問題
- (13) 經濟史의 理念과 非政治的 活動
- (14) 獨立後의 南亞
- (15) 「간더」와 現代

3. 東南亞地域

- (1) 東南亞의 言語問題
- (2) 東南亞의 政治
- (3) 前近代史, 古代자바 研究
- (4) 近代史
- (5) 言語學, 제비스틱 言語
- (6) 東南亞의 經濟

- (7) 東南亞의 政治
- (8) 言語學, 西南太平洋의 言語
- (9) 文學과 演劇
- (10) 東南亞 各國의 言語
- (11) 人類學과 社會學
- (12) 近代史, 이슬람 中心史
- (13) 亞細亞에 있어서의 日本

4. 中國과 韓國

- (1) 漢唐時代史
 - (2) 韓國問題
- 이 韓國問題 時間은 7日 午前, 午後의 2個分科로 되어 있었는데 第1分科 時間에는 美國에서 온 姜渭祚교수가 議長이 되었고 鄭慶朝교수가 參加할 豫定이었으나 不參하였고 뜻밖의 손님으로 蘇聯서 온 韓國系 蘇聯人 개오르그금이 주로 北韓의 發展相을 紹介하였고 또 南韓의 經濟發展相을 지금 泰國 아카페本部에 있는 하와이大學 林榮一教授가 發表하였고 또 이 時間에 金斗憲博士의 研究發表가 있었다. 第2分科 時間에 金海宗教授와 李崇寧教授의 研究發表가 있었다.

- (3) 20世紀혁명사
 - (4) 前近代中國 對外關係
 - (5) 古代中國의 古典研究
 - (6) 前近代中國의 文學과 美術
 - (7) 近代中國史의 評價
 - (8) 華僑問題
 - (9) 古代中國言語學
 - (10) 前近代極東 儒敎問題
- 이 時間에 서울대 文理大學長 高炳翊 教授가 儒敎의 比較評價 문제의 論文을 發表하였다.

- (11) 清末時代史
- (12) 現代中國
- (13) 宋王朝時代史
- (14) 近代中國文化史
- (15) 近代中國經濟發展
- (16) 列強과 近代中國
- (17) 非儒敎의 古典
- (18) 近代中國의 文學 및 社會史
- (19) 中國의 西歐研究

5. 日本문제

- (1) 國史와 地方史
- (2) 言語와 文化
- (3) 近代史
- (4) 宗教
- (5) 西歐와 日本
- (6) 戰後의 日本

이 시간에 美國에서 온 柳明根 教授가 日本의 戰後 再武裝문제를 發表하여 濠洲新聞에 크게 報道되었고 또 美國에서 온 金鴻洛 教授가 佐藤政府 오끼나와 문제들 들어 論文을 發表하였다.

(7) 德川時代史 研究

6. 北亞 및 中亞 地帶

- (1) 印度와 이란, 터어키 및 印度와 유럽문제
- (2) 蒙古와 滿洲
- (3) 솔로스트리안研究
- (4) 터어키문제
- (5) 印度와 이란 研究

以上과 같은 地域別 乃至 國家別로 研究發表 時間이 配定되었다. 이로서 韓國은 아직도 獨立된 國家單位로 議題가 採擇되지 못하고 中國에 붙어있는 實情이 되었다. 이것은 다른데에 原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學者들이나 外國學者들이 韓國에 관한 研究論文을 發表하겠다는 申請이 적다는 것이 큰 原因이 된 것이다. 이러한 疏外된 韓國學을 振興시키자면 무엇보다도 韓國學 啓發에 여러가지의 輿件이 잘 造成되어야 할 줄 안다.

以上과 같은 地域別 乃至 國家別 議題로 研究發表 時間이 配定된 이외에 「인터 푸로그람 세미나」로서 4개의 議題로 「세미나」時間이 배정되었고 또 特殊한 主題別로 ABCDEFGH 등의 8個項目的 「세미나」時間이 配定되었다. A項의 例를 든다면 水利灌溉문제를 다룬 것인데 ①埃及, 이스라엘, 이란 등의 水利灌溉事業問題와 ②南部아시아地域의 水利灌溉문제 ③中國의 水利灌溉문제 등을 다루는 各各의 「세미나」時間이 배정되었다. 이와 같은 例에 따라서 8個項에 걸쳐서 「세미나」가 있었다. 이 중 G項의 「세미나」主題가 「아시아 社會에 있어서 法의 役割」이란 제목이었다. 戚秉春 教授는 이 「세미나」의 第4分科의 主題인 「法과 近代化」란 「세미나」시간에 「韓國에 관한 法生活문제」란 論文을 發表했다.

이 밖에 또한 極東先史學會의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여기서 孫寶基 教授가 「韓國의 先史研究 特別 發掘에 對하여」라는 研究結果를 發表하였다.

이러한 先史學會의 여러 「세미나」以外에 「圖書館問題」에 관한 「세미나」가 여러 主題로 열렸다. 이 「도서관문제」에 관한 「세미나」는 濠洲 國立大 東洋도서관장 Jean M. Waller 女史와 副館長 Emid Bishop 女史가 主로 企劃한 것인데 이것은 國際 東洋學 圖書館學會의 이름으로 열리게 된 것이었다. 이 「圖書館문제 세미나」의 主題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1) 國家間 또는 地域的 圖書館協會의 相互協助와 情

報交換問題에 關하여

이 문제의 「세미나」議長은 英國 런던大學校 東洋 및 아프리카學部 圖書館長 피어슨氏가 擔當하였다.

(2) 東洋學 研究의 最近趨勢에 있어서의 갈등문제 이 세미나의 議長은 하바드燕京도서관의 吳文津氏가 擔當하였다.

(3) 東洋學 및 圖書館學의 教育문제

이 「세미나」의 議長은 「아대라이드」大學校의 「테이론」교수가 擔當하였다. 우리 代表團中 李鳳順 教授가 이 세미나의 討論者로서 參加하였다.

(4) 書誌作業의 共同協調

이 문제의 세미나의 議長은 켈커타의 國立도서관장 케서반氏가 擔當하였다.

(5) 地域別 問題로서 日本地域問題

議長은 日本京洋文庫 에노기 教授가 擔當하였다.

(6) 東南亞지역문제

이 세미나에는 美國 國會도서관의 홉스氏가 議長을 맡았다.

(7) 西部아시아문제

이 문제의 세미나 議長에는 테헤란大學校의 「아프사아트」교수가 맡았다.

(8) 中國地域問題

이 문제의 세미나 議長에는 濠洲 國立도서관의 王교수가 擔當하였다. 이 세미나 時間에 王교수의 好意로 韓國문제에 관해서 本人이 發表할 수 있도록 豫定에 없었던 機會를 마련해 주었다.

(9) 南아시아問題

이 문제의 세미나 議長은 印度 公共도서관의 「슈튼」氏가 擔當하였다.

(10) 「마이크로폼」을 포함한 印刷資料의 收集에 共同協調문제

이 문제의 세미나 議長에는 濠洲 國立도서관의 「펠메스터」氏가 맡았다.

이것 以外에 濠洲에 있어서 東洋學 教育문제에 관한 세미나가 또한 있었다. 이 세미나는 1月11日 하루종일에 걸쳐서 열렸는데 여기에는 主로 濠洲에 있는 國立大學을 위시해서 各 大學의 교수들이 參加하였다. 議長은 濠洲 國立大學의 「듀크」博士가 擔當하였다.

도서관 관계 人士들은 7日 저녁에 特別野會公宴이 있었는데 이날 본인은 大使館 晩餐會와 겹쳐서 바쁘게 부산을 떠났다.

이번에 우리 一行 11名은 「캔버라」에 도착하자마자 孫寶基 教授를 連絡團長으로 삼아 團體행동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며 東洋學者大會 韓國代表로 金海宗 教授가 評議會員으로 選任되어 評議會에 數次 참석하였고, 會議途中 駐濠韓國大使館의 林領事가 每日 宿所에

나와 우리들의 많은 便宜를 도왔으며 濠洲 國立大學에서 人口문제를 研究中인 權君이 시중 車便 等 많은 手酷를 해 주었다. 그리고 濠洲 國立大學 東洋學部 부속 도서관에서 일하는 金女史도 여러가지로 도와주었다. 특히 7日날 저녁에는 閔忠植大使께서 우리 一行을 환영하는 晩餐會를 열어 주었고 그외에도 9日에 또다시 후한 대접을 받았다. 이번 大會를 통해서 느낀 것은 大會를 위한 組織的인 籌備와 參加가 아쉬웠다는 것이다.

大會는 12日에 끝나는 것이지만 參加한 사람에 따라서는 10日부터 끝나는 이가 있어 10日부터 하나 둘씩 出發하기 시작하였다. 11日에 出發한 李崇寧 崔虎鎮 林榮一博士 等이 空港에 와 있는 신문記者와 만나게 되어 崔虎鎮 林榮一 두 博士의 얼굴이 크게 그곳 신문에 실리게 되어 우리 一行에 매우 즐거웠다. 그러나 우리 一行보다는 日本一行中에는 三笠宮이라는 現昭和天皇의 아우되는 이가 參席하여 「켄버라」 신문의 큰 話題거리가 될때 比하면 크게 선전이 된 것은 아니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三笠宮은 歷史學者로서 中東地方歷史의 專門家이며 現在 中東協會會長으로 있으며 中東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日本政府나 實業界 學界등도 中東에 크게 進出하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傳해지고 있다.

우리 一行은 10日頃부터 헤어지기 시작하여 12日까지는 모두 떠나게 되고 15日에 威秉春氏가 마닐라에 있을 法律家會議에 參席하기 위하여 「켄버라」를 떠나게 되었으며 孫寶基교수는 13日부터 31日까지 그곳 考古學家가 마련한 考古學觀察旅行을 하게 된 까닭에 제일 늦게 떠나도록 되어 있었다. 나의 一行은 12日 午前에 「켄버라」를 떠나 왔는데 一行은 鄭在覺 趙璣濬과 本人 等 3人이었다. 12日 午前에 「시드니」에 도착하여 午後에 市內 散歩를 하고 저녁에는 「시드니」 沈總領事宅에서 마련한 晩餐에 참석하여 總領事館職員과 그곳에 와 있는 공무원과 實業家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유익한 이야기를 들었다. 마침 하루전에 이곳에 온 李崇寧 崔虎鎮 兩교수와 오스트랄리아 호텔에 같이 하룻밤을 투숙하고 晩餐에 같이 참석하여 환담을 즐겼으며 13日에 거의 같은 시간에 떠나기 때문에 비행장에서 헤어졌다. 李崇寧 崔虎鎮 두 교수는 香港으로 직행하였고 우리 3人은 印尼 자카르타로 날았다.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시드니」 沈明源 總領事は 金斗憲 先生 婿 鄭인 까닭에 金先生은 그곳에서 며칠 쉬다가 中東地方을 좀 돌아보고 歸國하겠다고 눌러 앉았다.

鄭在覺 趙璣濬 本人 세사람은 「말레이시아」 航空機로 「시드니」를 떠나니 같은 機內에서 우리는 또다시 蘇聯代表 一行의 몇사람을 만났다. 여기에 「게오르그스金」이

라는 韓國系 蘇聯人도 있었다. 이들은 印度 「뉴데리」를 거쳐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했다. 이들과는 「자카르타」 비행장에서 헤어졌다. 또 같은 비행기로 美國會 도서관 東洋部長 常石氏도 만났다. 常石氏는 자카르타를 들러 「켄카타」 「뉴데리」등을 들러 歸國한다는 것이었다.

「자카르타」비행장에는 「자카르타」大使館에 있는 職員들이 마중나와서 모든 案内를 해 주었다. 「아스리」호텔로 案内되고 보니 常石氏도 여기에 같이 投宿하였다. 그날 저녁에는 大使館 職員들의 대접을 받았다. 大使館 職員中에 高大出身이 있어서 鄭 趙 兩高大 교수 덕으로 나는 좋은 대우를 받았다. 14日에는 大使館 職員과 留學生의 案内로 農村求景을 하였고 15日에는 印尼 國立大學과 그곳 寄宿舍와 도서관등을 見學하고 또 午後에는 議事堂, 市場등을 求景했다. 15日 점심에는 그곳 韓國貿易館長의 대접을 받았고 저녁에는 그곳 韓國實業家의 대접을 받았다. 今年에는 서울의 又來屋이 이곳으로 進出한다고 한다. KAL호텔이 이곳으로 또한 進出한다고 한다. 이러한 좋은 소식이 우리를 매우 즐겁게 해 주었다. 15日 저녁 비행기로 「싱가폴」로 떠났다. 싱가포르 「라이온 시티」호텔에 투숙한 것은 밤 11時頃이었다. 이튿날 16日 아침 그곳 貿易館長의 案内로 싱가포르 大學을 視察하였다. 그곳 涉外室長의 案内로 도서관, 研究所, 寄宿舍 등을 돌아 보았다. 寄宿舍는 主로 鄭高大大學院長의 主張 때문에, 研究所는 趙교수의 主張 때문에, 도서관은 本人의 主張 때문에 돌아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국립도서관도 돌아 보았다. 싱가포르 大學도서관 林 東洋部長은 우리나라에도 다녀간 분이므로 親切하게 案内해 주었고 싱가포르국립도서관장은 아직 오스트랄리아에서 돌아 오지 않았기 때문에 副館長이 案内해 주었다. 싱가포르 大學도서관이나 싱가포르국립도서관이 모두 各各 60萬권 가량의 장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니 實로 놀라운 일이며 도서관관으로 볼 때에는 우리 나라 보다 훨씬 앞서게 된 느낌을 가졌다. 이날 점심은 그곳 貿易館長과 外換銀行직원의 대접을 받았으며 저녁은 그곳 僑胞와 말레이시아 駐在大使館 公使와 새로 신설되어 부임한 싱가포르 總領事와 會食할 기회를 가졌다. 이곳에 우리 總領館이 新設된지 不過 며칠밖에 안되는데 벌써 韓國總領事館은 Korea領事館으로 불리게 되고 지금까지 Korea로 통해오던 北傀領事館이 North Korea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매우 즐거운 소식이었다.

17日 午後에 「싱가폴」을 떠나 말레이시아 首都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하였다. 이날 우리 一行보다 몇시간 늦게 李鳳順 館長이 「싱가폴」에서 이곳으로 와서 같은 호텔인 페드럴 호텔에 투숙하였다. 李鳳順 교수

는 13日 「켄버라」를 떠나 「시드니」를 들러 14日에 싱가포르에 와서 있다가 이날 이곳으로 온 것이라 한다. 17日 午後는 市内 구경을 하고 저녁에는 그곳 大使公館에서 葛弘基 大使의 接見를 받았다. 18日은 그곳 우리 大使館職員의 안내로 말레이시아 국립大學과 大學 도서관을 視察하였다. 이 大學과 大學도서관은 아직 歷史가 극히 짧은데도 不拘하고 완전히 西歐化되어 있었고 施設이나 藏書도 우리나라와 比較되지 못할 정도로 잘 되어 있었다.

18日 우리 一行 3人은 방콕으로 떠났다. 李鳳順 교수는 그곳에서 며칠 더 있다가 방콕으로 오게 되어 우리 一行만 먼저 떠났다. 李鳳順 교수는 방콕 마닐라 香港 日本을 거쳐 29日頃이나 歸國하리라 한다. 방콕에 도착하니 泰國駐在 韓國大使館職員이 마중 나와 주어 친절한 안내를 받았다. 「나라이」호텔에 투숙하였다. 이날 午後에는 호텔에서 쉬고 19日에는 방콕郊外에 있는 古都를 구경하고 市内 寺刹등을 구경하였다. 20日 午前에는 이곳 博物館과 국립도서관을 視察하고 이곳 國立도서관장은 나하고 舊面인지라 반가웠고 親切히 案内해 주었다. 점심에는 이번에 UN大使로 轉任發令을 받은 韓鈞項 駐泰大使의 接見를 받았다. 尹永教 公使도 만나고 其外에 知面이 있는 大使館職員을 만나 有益한 歡談을 나누었다. 방콕에는 大使館 職員과 大韓航空 그곳 駐在員과 海運公社 駐在員등이 많은 便宜를 보아 주었다. 21日 午前에 방콕을 떠나 香港으로 왔다. 香港에서는 高大出身 實業人 南君이 空港에 마중 나와 「호춘나」호텔로 案内해 주었다. 香港에서는 主로 資料購入에 대해 그곳 尹總領事와 相議하고 二泊 후 23日 大韓航空便으로 나혼자 먼저 歸國했다. 우리 3人 一行은 시종 같이 다니다가 香港에서 헤어졌다. 鄭院長과 趙교수는 하루 더 묵은 후 鄭교수는 臺北으로 가게 되고 趙교수는 日本으로 가게 되어 있었다. 香港에서 3人은 일단 헤어진 셈이다. 鄭院長은 臺北·日本을 들러 2月中에 歸國하게 된다고 하며 趙교수는 日本을 들러 2月中에 歸國하리라 한다.

- 이번 旅行에 특히 느낀 바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日本의 海外 觀光團이 大衆化 되었다는 것.
 - ② 모든 國際觀光都市는 日本語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
 - ③ 香港 방콕 자카르타 등에 日本의 經濟的 侵透가 대단하다는 것.
 - ④ 東南亞地方에 韓國의 進出이 뒤졌지만 지금이라도 早速한 進出만 한다면 相當히 進出할 可能性이 있다고 보았다.
 - ⑤ 泰國, 馬來, 印尼와 積極經濟協力策을 講究함이 좋다고 느꼈음.

- ⑥ 싱가포르, 馬來, 泰國등은 모두 民族主義가 强하고 文化的 發展意慾이 强하며 印尼도 強力한 文化統一政策을 推進하고 있다고 느꼈음.
- ⑦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의 도서관계는 어떤 점에서 韓國보다 앞서 있다는 것.
- ⑧ 「오스트랄리아」국립大學도 東洋學의 強力한 研究機關으로 登場했다는 것.
- ⑨ 華僑문제를 포함한 大規模의 東南亞研究所를 設置하여 東南亞資料센터를 두어야 할 것.
- ⑩ 東南亞 各國과 學者와 學生들의 交流가 時急하다고 생각됨.
- ⑪ 學術的 國際會議에 北僑를 포함한 共產圈 學者와도 앞으로 접촉이 잦아질 것이니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日 程

- 1月 4日 第28次 東洋學者大會에 參加하기 위하여 「오스트랄리아」의 서울 「켄버라」로 떠나다
- 1月 5日 香港, 오스트랄리아의 다윈, 시드니를 거쳐 「켄버라」에 도착. 숙소에 들다.
- 1月 6日 등록과 개회식
- 1月 7日 地域別 主題別로 本會議가 열리다. 도서관 人士들의 特別 野食會가 6時에 郊外에서 있었다. 閣大使의 招請晩餐會가 있었다.
- 1月 9日 오스트랄리아 總督의 招持宴
- 1月12日 폐회
- 1月13日 시드니發 자카르타 도착
- 1月15日 자카르타發 싱가포르 도착
- 1月17日 싱가포르發 쿠알라룸푸르 도착
- 1月18日 쿠알라룸푸르發 방콕 도착
- 1月21日 방콕發 香港 도착
- 1月23日 香港發 서울 도착

國際東洋學者學術大會規則

- 第1條 本大會는 매 3年마다 1회씩 集會한다. 단 招請國家의 事情이나 要求에 따라 이 大會開催期間은 1年 또는 2年으로 短縮되거나 4年으로 延長될 수 있다.
- 第2條 各大會는 本大會開催地 國家의 國民으로 構成되는 한 委員會에 의해서 組織되어야 한다. 同委員會는 任意대로 大會分科委員會의 數를 加減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大會日字, 大會期間, 議事進行節次 그리고 招請에 관한 모든 細部事項을 自由로 規定할 수 있다.
- 第3條 1. 各大會 開催時는 適切한 方法에 의하여 數個의 地域과 一般的으로 本大會에서 討議되는 學

問分野를 代表하는 25명 乃至 30명의 學者로 構成되는 1個의 諮問委員會가 組織되어야 한다. 議長과 事務總長 以外에 1國에서 2명 限度까지의 學者는 任命될 수 있다는 것은 諒解된 事項이다.

2. 當該大會議長 및 事務總長은 同 諮問委員會의 委員長職과 幹事職을 兼하는 것으로 한다.
3. 同 諮問委員會는 다음과 같은 諸機能을 遂行한다
 - (a) 開會 中인 大會會期中 생기게 될지도 모르는 同大會에 影響을 미치는 諸問題를 決定하고
 - (b) 本條 第4項의 規定에 의거하여 同 諮問委員會의 執行委員을 選任한다.
4. 兩次大會會期中 同 諮問委員會를 대신해서 活動할 諮問委員會의 執行委員會가 設置되어야 한다. 同 執行委員會는 다음과 같이 構成된다.
 - (a) 次期大會의 主催國에 있어서 그러한 任命이 있는 경우 次期大會의 議長과 事務總長, 이들은 또한 執行委員會의 委員長職과 幹事職을 兼한다.
 - (b) 閉會된 前次大會의 大會事務總長.
 - (c) 同 諮問委員會 委員中 多數票에 의하여 選出된 委員 3명
 - (d) 但, 執行委員의 職權上委員의 한 사람이 執行委員으로서 活動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가 所屬하고 있는 大會組織委員會에서 交替委員을 任命해야 한다. 그리고 執行委員會의 選任委員의 한 사람이 執行委員으로 活動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交替委員은 執行委員會에서 選任한다.
5. 執行委員會의 職務事項으로는 制限의인 것은 아니지만 다음 事項을 包含해야 한다.
 - (a) 國際東洋學者學術大會規則 第4條의 規定에 따라 前次大會에서 어떤 決定에 到達하지 못 하였을 때 次期大會開催地 決定에 관한 事項
 - (b) 次期大會組織委員會에 建議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提案된 次期大會의 規模 및 一般的 性格에 관한 諸問題의 審議
 - (c) 國際東洋學者學術大會의 存廢에 관한 事情의 發生時 執行委員會는 前次大會의 諮問委員과 協議한 後 本條 第1, 2 및 3項의 規定에 따라 構成되며 또 機能을 發揮하게 될 諮問委員會와 함께 새로운 大會의 召集을 周旋해야 한다.

第4條 組織委員會는 大會開催國家에서 使用되고 있는 言語中 하나 또는 그 以上の 言語를 大會의 公式言語로서 指定해야 한다. 이 公式言語는 會議 議事錄作成에 使用되어야 한다.

討論中 諸他言語의 使用은 各 分科委員長의 決定

에 따라 任意로 결정할 수 있다.

第5條 各 分科委員長은 그 分科委員會의 會議를 主宰한다. 그는 會議順序를 規定하고 論文朗讀時間을 정하며 討論을 進行 또는 停止시킨다. 但, 意見이 相反될 때에는 그는 그것을 諮問委員會에 廻付시켜야 한다.

第6條 各 大會는 그 本會議中 次期大會 開催國을 選定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代表를 통하여 開催를 希望해 온 國家中에서 또는 諮問委員會에서 暫定的으로 指定한 國家中에서 選擇해야 한다. 同一國家에서 兩次的 大會를 계속 開催할 수 없다.

第7條 各 大會의 閉會後 一般的인 權限은 組織委員會에 移讓되며 그 權限은 次期大會의 準備를 委囑하는 委員會構成에 관한 公式通報가 있을 때까지 維持된다. 따라서 同 組織委員會는 그것에 의해서 組織되는 大會가 해야 할 責務에 관한 것을 解決하는데 必要한 局部的인 權限만을 留保한다.

本 學術大會와의 紐帶機關

國際東洋學者聯合(The International Union of Orientalists)

國際東洋學者聯合은 國內東洋學會 또는 東洋學研究所의 한 國際的 協會로서 1957年 「이스탄불」에서 있었던 第22次 國際東洋學者大會에서 創設되었다. 現在 同聯合에는 19個國家가 加入되어 있다.

同 聯合은 「유네스코」의 哲學 및 人文科學國際協議會(Coseil International de la Philosophie et des Sciences Humaines of UNESCO)에 加入이 國際機構內에서 東洋學研究分野를 代表한다. 同 聯合은 上記 哲學 및 人文科學國際協會에서 提供되는 諸基金을 各種 國際調查研究事業이나 諸 書誌事業에 配定하는 일을 도우고 있다.

現在 同聯合의 任員은 다음과 같다.

副議長—A. Goetze(美國)

E. Zhukhov(蘇聯)

R. Dandekar(印度)

事務總長—H. Franke(西獨)

幹事—T. Yamamoto(日本)

Sir Harold Bailey(英國)

財務—L. Bazin(佛蘭西)

1969년에 死亡한 K. Barr(덴마크)議長의 後任者로서 新任議長이 選出될 豫定으로 있다.

同聯合의 總會는 1月 8日 瀋洲國立大學校敎務處建物에 있는 R.C. Mills室에서 午前 11時에 開催된다.

極東先史學協會(The Far Eastern Prehistory Association)

極東地區先史學協會는 1929년에 創始된 太平洋地域科學者學術大會(the Pacific Science Congress)의 한 支分으로서 그때 그때 運用되어 왔다. 그것은 第2次大戰前에 「하노이」「마닐라」 및 「싱가폴」等地에서 세 차례에 걸쳐 學術大會를 開催한 바 있다. 그 後 同大會는 1953年 「마닐라」에서 있었던 第8次 太平洋地域科學者學術大會 第4次會議에서 再開되어 그때부터 定期的으로 會合을 갖게 되었다. 即 「뱅크크」의 第9次 『호놀룰루』의 第10次 그리고 東京의 第11次 太平洋地域科學者學術大會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同大會는 考古學論文의 提出을 위한 獨立的인 會合을 가졌으며 獨自的인 分野에 관한 會議을 開催한 바 있다. 그러나 今年에 限하여 그의 오랜 太平洋地域科學者學術大會와의 關係를 一時中斷하고 第28次國際東洋學者學術大會의 한 加入者로서 受諾하고 있다.

그 동안 同協會는 「하와이」大學校의 人類學科 W. G. Solheim 2世博士가 議長인 한 理事會를 選出하고 1957年 同協會의 美國分會에 의해서 創刊되었으며 Solheim博士가 그 編輯人인 定期刊物 「亞細亞展望」(Asian Perspectives)을 發行해 왔다. 最近 同刊行物은 「하와이」大學校의 社會科學調查研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에서 發行하고 있다.

同協會의 主要目的은 成文上으로는 極東地域에 局限되지 않는 『極東의 先史學과 人類學에 關心이 있는 모든 科學者들 相互間의 緊密한 紐帶』를 造成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다. 同協會는 太平洋 및 亞細亞大陸을 焦點으로 하는 同地域의 文化史領域을 그 研究分野로 삼고 있다. 따라서 그 地域은 「하와이」로부터 「마다가스카」島에 이르는 島嶼地域과 濠洲로부터 「시베리아」 및 西部「파키스탄」에 이르는 大陸地域을 包含한다. 이 廣大한 地域에 있는 投稿人들로부터 提出되는 地域報告書로서 亞細亞展望의 定期的인 刊行은 學界에 重要한 資料가 되고 있다. 濠洲土着民研究所退任所長인 F. D. McCarthy氏와 濠洲國立大學校의 J. Golson教授 및 D. J. Mulvaney教授가 同協會의 濠洲代表이다.

國際東洋司書協會(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Orientalist Librarians)

第28次 國際東洋學者學術大會의 圖書館세미나에 關하여 하나의 國際東洋司書協會의 會議가 開催될 것이다. 이 協會는 1967年의 「엔·아바아」에서 開催된 第27次 學術大會 會議期間中에 있었던 圖書館問題 討論時에 暫定的으로 設置된 것이다.

同協會는 東洋의 司書들이 當面하고 있는 特殊問題를 研究하고 그들의 地域代表를 通하여 지금은 國際東

洋學者學術大會의 한 部分으로서 定期的으로 會合을 갖고 있는 圖書館計劃을 위한 協定을 促進시키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同 臨時諮問會議(The Provisional Advisory Council)의 議長은 「런던」大學校亞細亞·阿佛利加問題研究科(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의 司書인 J. D. Pearson氏이며 同 幹事는 「하와이」大學校 圖書館學科大學院 Y. Suzuki教授이다.

同協會의 趣旨에 관심이 있는 者는 누구든지 兩次的 學術大會期間中 實行되어야 할 諸活動을 計劃할 수 있게 되어야 하며 또 지난 4年間에 設立된 數個의 地域 및 國內東洋司書團體와 이 國際機構가 關係를 맺을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것이 同 圖書館세미나에서 要望되었다.

濠洲國際問題研究所(The Australian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濠洲國際問題研究所는 國際問題에 關한 知識을 調査普及한다는 同 研究所의 趣旨를 위하여 獻身하는 非政府非營利團體이다. 同 研究所는 그 理事會를 「캔베라」에 두고 있으며 各州에 支部를 두고 會員總數는 約 2,000 명에 達한다. 同 研究所는 個別 또는 公共會議 講演會 및 세미나를 周旋하고 廣範한 主題에 關한 個別的 研究를 장려하며 圖書 또는 油印物을 發刊하고 定期刊物로는 Australian Outlook, Australia's Neighbour's World Review 등이 있다. 그리고 濠洲와 諸他 國家間의 議會議員의 交換訪問을 周旋한다.

本大會에 關聯해서는 『濠洲의 對亞細亞政策』이라는 演題의 講演會가 1月 11日(月曜日) 밤에 「콤브스」講堂에서 있게 될 것이다. (尾)

(19년에서 계속)

는 점이였다. 이들은 개인보다 단체나 연구기관의 발전을 앞세우고 또 이 단체나 연구기관은 국가 발전 목표의 성취를 위한 노력으로 결합되고 있다. 공동의 두뇌를 짜내고, 계획하고, 이 계획이 공동작업으로 협조가 잘 조화되는 단체나 국가가 발전되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자제로 관(官)은 민(民)을 지원하고 민(民)은 관(官)을 의지하고 信賴와 협조로서로 믿고 도우는 社會風潮가 強化되어 우리들의 눈이나 귀가 세계 무대로 향하여 보다 큰 목표로 매진되어야 하겠다.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시야를 좁히려 개인의 理解關係와 影響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릇된 자제나 잔피가 없어지고 공동 개발 노력에 참여하여 자기의 공을 타인에게 주고 타인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감싸주는 노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이와 같은 풍조가 우리 도서관에서 먼저 이루어졌으면 하는 욕심이 간절하다.

또 하나 세계속의 한국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다. 특히 구라과 여러 나라 시민들은 Korea를 이해하고 인식하는 수가 극히 적은 편이다. 앞으로 세계속에 한국의 자랑스러움과 역사적인 유물 등을 발달 보존하고 정리하여 문화교류에 힘써야 하겠으며 전문직의 해외훈련시찰 등의 기회를 포착하여 많은 도서관인들이 전문을 넓히어야 하겠다. 그러한 뜻에서 가급적 각국의 관계 단체를 방문하였을 때 마다 교류를 강조하고 협력을 요청하여 점차 기회가 많아 질 줄 안다. 각자의 자질향상과 능력배양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